

한국교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에도 성명 잇따라 “모든 성도들 함께 위로하고 기도”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추락사고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승객 179명이 사망하는 참극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는 사고 당일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함께 하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구한다”며 “전국의 교회는 큰 슬

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한국교회는 “정부와 항공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사고를 속히 수습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가적 위기 속에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정치적 해석과 이용을 경계하며 정부와 국회는 먼저 사고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

종생 목사)도 성명에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전해진 무안 항공 항공기 사고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태국 방콕을 출발해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장치 미작동으로 통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이륙과 충돌하며 큰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당국은 조류 충돌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7일간의 국가예도기간을 설치하고 무안국제공항 현지를 비롯해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송년회 모임 가져 “한국교회에 웨슬리 같은 성령의 불씨를!”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송년회가 지난 12월 17일 여의도 소재 CCMM 빌딩 12층에서 열렸다.

10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본교 단 전 총회장 나세웅 목사는 기도에서 “죄우 모든 사람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건강한 조국을 건설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영역,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성 전 총회장 원필연 목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사로서 평생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평생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설교했다.

전 성결대 총장 주삼식 박사는 축사를 통해 “엇저가 신년 같았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이 됐다. 우리 웨슬리언 지도자 모두 인생 끝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날 한국은 썩과 채소는 풍성한데, 소금 짠맛이 빠진 것 같다.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등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는데, 왜 이리 한국은 혼란스러울까? 다윗같은, 여호수아같은 지도자를 왜 세우지 못할까? 빛이 없어서인 것 같다. 어수선한 이 시기에 예수님, 바울 그리고 웨슬리라는 평소의 신앙 소신으로 웨슬리를 확인하자”고 말했다.

오성택 목사, 자랑스러운 부흥사상 수상자로 선정

‘제24차 세계복음화협의회 국민대상’ 수상

예성부흥사회 대표회장 및 총재를 역임한 오성택 목사(서울중앙교회·사진)가 세계복



음화협의회이하 세계복합가 수여하는 ‘제24차 세계복합 국민대상’ 자랑스러운 부흥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계복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서울한영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목회자 등 5개 부문에 걸쳐 시상

할 예정이다.

세계복합은 1988년 8월 15일부터 4일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88세계복음화대회’를 계기로 창립했다. 국내 교계지도자 및 단체장으로 구성된 기독교 단체로 선교지역은 물론 소외이웃 돕기, 어려운교회 돕기, 홀로된 사모 돕기 등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4월 20일 개최

‘부활·회복·창조’ 주제... 준비위원회 출범식 가져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대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출범했다. 2025년 부활절은 4월 20일로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제는 ‘부활·회복·창조’이며 ‘부활, 회복의 은혜·새역사 창조’를 표어로 준비한다. 주제성구는 이사

야 60장 1~3절과 요한복음 11장 25~26절이다.

이날 출범예배에서 ‘일어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탄핵 정국의 암흑기에 한국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메시지를 따라 분열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화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부활절 연합예배야말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이고 갈라진 사회에 연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출범식에선 준비위원장에 이영훈(예장신교)을, 집행위원장에 이영훈(예장신교)을, 사무총장에 김종명(예장백석) 총무를 각각 선임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INCK)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함께 드려왔지만 2011년을 끝으로 나뉘었다. 이후 한국교회총무단을 중심으로 꾸린 부활절 연합예배와 NCK 부활절 연합예배가 따로 진행되고 있다.

성결대 전요섭 교수, 한국교정상담학회유임 “법무부와 긴밀한 관계속 협회 발전 위해 노력”

(사)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는 지난 21일 (토) 오전 11시 한국역사사이버대학 교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학회장으로 전요섭 교수(사진)를 유임했다.



전 회장은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장, 신학전문대학원장, 교목실장, 학생지원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교양대학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향후 2년간 회장으로 이 회회를 이끌게 되었다.

(사) 한국상담학회는 회원 4만

명의 국내 굴지의 학회로서 15개 분과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정상담학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 및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등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학술연구에 주력하는 학회이다.

유임된 전 회장은 앞으로 법무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교정상담 전문인력의 확대에 범죄예방 및 회복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교정상담을 크게 활성화 하는 회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신간소개 |

땅끝 거인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결의 선교사들이 있다. 삶과 사역의 크고 작음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리라는 것에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

여기 성결인의 선교사들 4명(김한주 황현중 장원전 백성훈)의 삶을 담은 책자가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자녀이자 일군으로 부르셨음을 일생동안 외치며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동행하시며 일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들을 거두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한 거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듯이!

‘땅끝 거인’의 저자 최홍오 목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 국내외를 오가며 초교파적 복음선교연합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는 1992년 창립한 행하는사람들글로벌선교회(APGM) 대표와 행하는사람들교회를 섬기고 있다. 열방으로 흩어진 복음의 씨앗인 ‘땅끝 거인’들이 더 잘하는 선교, 더 잘되는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땅끝 거인’이란 ‘땅끝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신적인 거인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저자 최홍오
출판사 모리스문화역행회

광고 신청 문의 070-7132-0091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신문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전국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성결신문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희 성결신문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교단의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교단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성결신문은 지난 한 해 국내외 해외,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성결인들의 신문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신문이 되려고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 발전하는 성결신문이 되어 교단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개 교회의 목회 현장과 한국교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교회 교직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결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신문은 항상 성결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성결신문사

design 지명수업원 adm adrianaus.com

이제 정장면 박사의 심층적이고 세밀한 이단 강의를 통해 그 실체가 파헤쳐진다.

(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이단과타종교」 강의)

비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특징

-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와 3년 3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의 실제 이야기
- 이단의 계보를 통한 시대적 특징과 발생원인 분석
- 이단의 빠지는 이유와 문제점 파악
- 성경해석의 바른 이해
- 주요 이단들의 주장과 특징
- 이단 예방과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신청 & 문의 010.8200.2693

모든 공 예배시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